

지독한 폭염에...해수욕장 '텅텅'·상인 한숨 '가득'

긴장마 이어 폭염특보 계속되며
전남 해수욕장 피서객 발길 뚝
“올 여름 장사 망쳤다” 망연자실
계곡·위터파크는 인파 몰려 '대조'

연일 낮 최고체감온도가 36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휴가철 피서객으로 가득차야 할 전남지역 일부 해수욕장에는 방문객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긴장마에 이어 너무나 더운 무더위 탓에 피서객들이 해수욕장으로 향할 발길을 실내나 계곡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해수욕장 인근 자영업자들은 물론전날 피서철 특수에 울상을 짓고 있다.

◇ 지독한 폭염에 전남 해수욕장 '썰렁' - 한낮 최고기온이 34.1도에 달한 지난 10일 신안군 입자면 대광해수욕장은 썰렁하기만 했다.

해수욕장이라면 으레 있어야 할 파라솔은 눈에 띄지 않고, 피서객은 손 꼽을 정도였다. 바나나보트와 플라이피수 등 수상레저시설도 찾는 손님이 없어 바다에 동동 떠있었다. 해수욕장 주차장에는 5대의 차량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같은날 오후 무안군 망운면 톨머리해수욕장도 한산한 분위기는 마찬가지였다. 해수욕을 즐기는 피서객보다 모래사장 뒷편의 나무그늘에 자리를 펴고 누워 있는 피서객이 오히려 더 많았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전남 지역 해수욕장 58곳을 찾은 이용객 수는 지난 8일까지 41만 68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만 7517명에 비해 2.5% 감소했다.

올해 유달리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의 발길이 줄고 있는 이유는 역대급 폭염이 꼽히고 있다. 극한 폭염에 해수욕은 커녕 야외 활동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해수욕장을 찾은 일부 피서객은 “도저히 안되겠다”며 모래사장의 더위를 피해 차량으로 들어가 더위를 피하기도 했다.

충북 제천에서 신안 대광해수욕장을 찾았다는 김모(60)씨는 “고향이 신안이라 매년 이곳에 온다. 원래 이 시기엔 주차장이 꽉 차서 차 댄 곳이 없고, 가계마다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올해는 썰렁하다”며 “올해 유난히 덥고 습해서 사람들이 해수욕장보다는 위터파크 같은 곳으로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썰렁 한낮 최고기온이 34.1도에 달한 지난 10일 신안군 입자면 대광해수욕장이 휴가철임에도 피서객들이 찾지 않아 썰렁한 모습이다. /신안·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가족과 함께 광주에서 왔다는 박소미(51)씨 역시 “재작년까지 불꽃놀이, 맥주파티 등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가득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떠들썩함이 없는 것 같다”며 “폭염 때문에 부모님과 아이들 건강에 혹시 무리가 갈까 고민을 많이 하다 바다를 찾았지만 괜히 왔나 싶다”고 토로했다.

무안 톨머리 해수욕장을 찾은 김윤호(38)씨는 “피서 삼아 드라이브를 나왔지만 물놀이를 하기에 아이 건강도 걱정되고 너무 피곤할 듯해 차 안에서 구경만 하려 한다”고 말했다.

반면 도심의 물놀이시설이나 구레 수락폭포 등 전남지역 계곡을 찾은 지역민들의 발길은 이어졌다. 전남도 관계는 “전남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18일까지로 아직 남아있어 이용객이 줄었다고 판단하기는 이른 것 같다”면서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 해수욕장 인근 자영업자 '한숨' - “여름 한철 장사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안와서야 막막하네요.” 휴가철을 맞아 전남지역 해수욕장을 찾아야 할 피서객들이 바닷가가 아닌 위터파크나 계곡 등으로 몰리면서 휴가철만 바라보던 해수욕장 인근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신안 대광해수욕장의 경우 2022년 3만3246명이 찾았을 정도로 각광받았으나 2023년 5174명이 찾으며 이용객이 84.4% 급감한데 이어 올해 이용객은 2592명(7월 19일~8월 8일)에 그쳤다.

이날 신안 대광해수욕장 바로 앞에 위치한 김미옥(여·63)씨의 식당은 한창 점심 시간인데도 텅 비어있었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20년째 장사 중인데 원래 맛집으로 소문나 이즈음 손님들이 줄을 섰었다”며 “혹시나 하고 미리 비닐식탁보를 모두 깔아놨는데 허무하다”고 울상을 지었다.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오인숙(여·32)씨 역시 “작년까지 사람도 많았고, 주말뿐 아니라 평일과 밤에도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올해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대여해주는 튜브도 원래 없어서 못줬데 올해는 남아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오씨는 “동해안 해수욕장에 해파리가 나왔다”는 소식도 피서객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무안군 망운면 톨머리해수욕장에 올해 방문객은 2341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30%(3279명) 가량 줄었다.

무안톨머리 인근에서 리조트 매니저로 일하는 박준영(55)씨는 “다들 올해 가장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 딱 차던 평상도 텅 비어있다”며 “수시로 폭염이라고, 외출하지말라고 문자가 오니 놀러나오려 했던 사람도 안나오겠다”고 우려했다.

박씨는 “전남 지역 해수욕장 인근 자영업자들은 여름 한철 보고 장사하는데, 점점 더 더워지고 사람들이 해수욕장에 안나오면 어떻게 해야할지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호소했다.

/신안·무안·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복직 휴일이자 폭염이 계속된 11일 구례군 수락폭포 계곡을 찾은 피서객들이 시원스레 떨어지는 계곡물에 몸을 담그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구례=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번주도 펄펄...온열질환·가축 폐사 속출

광주·전남에 연일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찜통더위가 계속 맹위를 떨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2일 낮 최고기온은 32~36도, 13일은 32~35도에 분포하는 등 무더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11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한반도 상공에 겹쳐있는 두 개의 고기압(북태평양고기압·티베트고기압)이 여전히 견제해 열기가 축적되지만 하고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이번주까지는 폭염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잠 못 이루는 더운 밤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5호 태풍 '마리아' (MARIA)가 일본 동쪽해상에서 북서진하면서 한반도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지 않겠으나 북태평양 고기압에 영향을 미쳐 더 강한 폭염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었다.

태풍이 주변 기압계에 영향을 미쳐 한반도로 동풍을 불러들으면 태백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고온 건조해진 공기가 폭염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다만 태풍 경로와 기압계 변동이 큰 만큼 태풍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한편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5월 20일~8월 9일)에 따르면 광주·전남 온열환자수는 총 309명(광주 44명, 전남 265명)에 달하며, 사망자도 2명 발생했다.

폭염으로 인해 전남 18개 시·군 102호 농가에서 닭·돼지·오리 등 가축 총 11만 8934마리가 폐사했고, 3개 어가에서 넙치, 우럭 등 27만 8000마리가 폐사해 전남 농·어민들의 피해는 누적되고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해파리 극성인데...지자체 안전 관리 '허술'

여수 쓰임사고 일주일 지나도 몰라

폭염에 해파리가 극성인데 전남도는 피해 현황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여수시 무슬목 해수욕장에서 가족과 경기도 하남에서 여름휴가를 온 A(17)군이 해파리에 손등과 발등을 쏘여 119 구급대로 이송됐다.

당시 물가에서 놀고 있던 A군은 해파리의 독성에 고통을 호소했고 시야 흐려짐과 구토 증상을 보였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A군은 치료를 받고 3시간 뒤 안정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남도는 사고가 발생하자 1주일도 지나지 않는데도 해파리 발생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해파리가 증가해 해

수욕장 피해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조차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전남지역 해수욕장 해파리 사고 보고는 각 지자체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을 통해 이뤄진다. 각 해수욕장별로 배치된 해상요원이 지자체 담당자에게 사고를 전파하고 지자체는 이 내용을 전남도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피해가 확인되는 절차다.

하지만 지난 4일 발생한 사고 누락은 여수시 담당자의 불찰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상요원이 담당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지만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름철 일이 많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역주행에 역보행...전남 사망사고 잇따라

전남에서 역주행 오토바이 운전자와 차량 진행 방향의 반대쪽으로 도로 위를 걷던 보행자 등이 잇따라 사고를 당해 숨졌다.

11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새벽 5시께 나주시 문평면의 편도 2차로에서 A(여·44)씨가 SUV를 몰다 도로를 건너던 B(여·87)씨를 차로 치었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

졌다. 사고 당시 B씨는 2차로의 가운데 지점에서 차량 진행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께에는 순천시 해룡면의 자동차전용도로(신대지구 방향) 1차로에

서 C(여·26)씨가 승용차를 몰다 역주행하던 D(여·74)씨의 오토바이를 정면 충격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D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C씨는 가벼운 부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D씨는 순천시의 한 종합병원을 가기 위해 순천시 서면에서 자동차전용도로로 진입했다가, 병원 쪽 출구를 지나쳐 계속 직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구를 찾지 못한 D씨는 그대로 차를 돌려 1차로에서 1km여를 역주행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연재 기자 yjyou@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